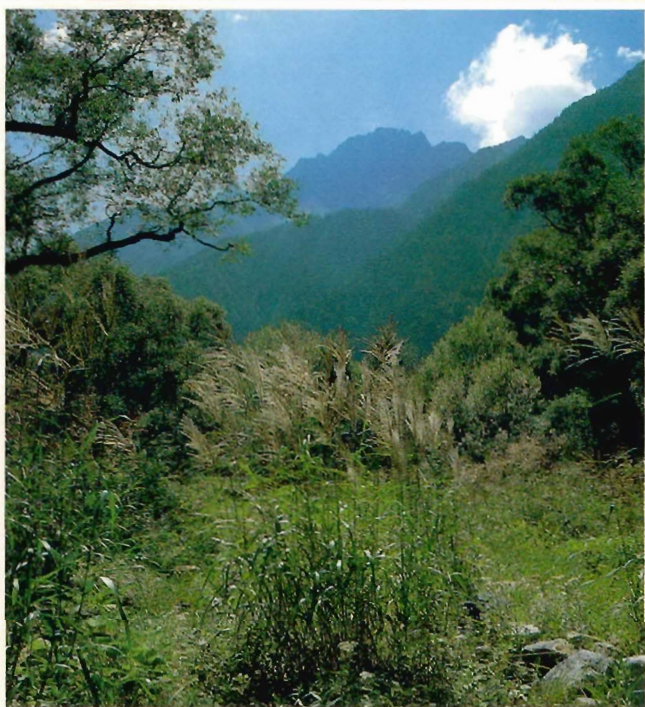


충현의 만나

역대기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기 도 제 목

1. 김창인 원로목사님의 건강과 사역을 위하여
2. 당회장 신성종 목사님의 말씀의 능력과 목양을 위하여
3. 부교역자들과 당회원들의 헌신과 능력 충만을 위하여
4. 제2회 예수 사랑 큰 잔치를 통해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돌릴 수 있도록
5. 교회학교와 찬양대와 교회의 모든 위원회의 질적, 양적 성장을 위하여
6. 나라와 민족과 위정자를 위하여
7. 세계 선교 사역지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위하여



충현의 만나

1993년 9월

『충현의 만나』는 성도들의 가정예배를 돕기 위해
충현교회가 매달 발간하는 간행물입니다.
9월호 집필을 위하여 홍창민·조동원·한용관·성봉환·
조윤재·김수상 목사님이 수고해주셨습니다.

역대기 서론

역사 문학에 속하는 역대기는 본문의 내용 자체로는 기록자가 누구인지 확정지을 수 없다. 그러나 여러 가지 자료들을 종합해볼 때 에스라가 기록했을 가능성이 크다.

사무엘서와 열왕기서가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를 정치적인 측면에서 백성과 왕들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는 반면에, 역대기는 주로 유다의 역사를 종교적인 측면에서 서술하고 있다. 시기적으로는 역대상은 사무엘서와, 역대하는 열왕기와 거의 비슷한 시기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

역대기의 주제는 '여호와와 통치'이다. 역대기는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생활 후 본국으로 돌아와 에스라, 느헤미야, 말라기의 지도를 받으며 예루살렘을 재건한 백성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책이다.

기록 목적은 첫째 사울에서 고레스에 이르는 시기의 제사장적인 예배의 역사를 서술하여 유다 중심의 종교적인 역사를 제공해 주는데 있으며 둘째, 하나님께서 남왕국 유다와 다윗 왕조를 통해서 어떻게 자신의 목적을 이루어 오셨는가 하는 점을 역사를 통해서 압증해 보이려는데 있다.

역대기의 내용을 대분해보면 ① 아담으로부터 다윗까지의 족보(대상 1장 ~ 9장) ② 다윗의 통치(대상 10장 ~ 29장) ③ 솔로몬의 통치(대하 1장 ~ 9장) ④ 유다의 열왕들(대하 10장 ~ 36장)이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더라』(1:34)

사람이라면 누구나 좋은 평판을 듣기 원하며 이를 위해 많이 노력하면서 삽니다. 우리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닮아가기 원하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세상 중에 살아 있는 인간입니까? 아니면 영원히 살아 계신 하나님입니까? 우리는 영결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즉 맡겨진 영역에서 용기 있게 그리고 능숙하게 자신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영결한 성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인생의 길을 걸어갈 줄 알았습니다. 자신의 나약함으로 때로는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명령에 순종하려는 자의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결한 성도가 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백성으로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누가 이 부름에 대답하겠습니까?

본문은 아담부터 에서의 후손에 이르기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불신앙과 신앙의 인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록하셨습니까? 결코 세상의 모든 사람을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인,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한 백성들에게는 많은 사람 중에서 특별히 선택하여 주셨음을 알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 되며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행적을 빠지지 않고 감찰하시고 기록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의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는 성도로서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 기도 / 최선을 다하는 영결한 성도가 되게 하소서. 충현의 40성장을 지켜주신 하나님. 더욱 말씀이 흥왕하여 살아 역사하는 교회, 운동력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유다의 말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2:3)

유다의 가정은 결함이 많은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인 이방인과의 결혼을 하지 말라(창 28:1)는 것을 어기면서 가나안 여인을 며느리로 취하였습니다. 또한 무심함으로 유다는 과부 며느리와 동침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있으므로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회개할 줄 아는 자였습니다(창 44:16-34). 그리고 부모에게는 효도심이 있는 자였고 진실함과 형제애가 있던 유다였습니다(창 37:26-27). 이런 세상의 문제들이 가득차 있고 불완전한 유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언약을 이어갈 가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유다의 가정을 통하여 다윗왕이 나왔습니다. 영원한 왕이신 예수께서 그 가정을 통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큰 축복을 받는 가정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은 결코 유다 가정을 보아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범죄와 유혹을 받고 때로는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정의 문제로 고민, 변민에 휩싸이곤 합니다. 오늘의 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이런 유다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십니까? 하나님을 모신 자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주시며 복된 가정으로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 기도 / 주여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세워주소서. 김창인 원로목사님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옵시고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과 지혜와 분별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야베스에 거한 서기관 족속 곧 디랏 족속과 시므앗 족속과 수갓 족속이니 이는 다 레갑의 집 조상 함맛에게서 나온 겐 족속이더라』(2:55)

본문은 유다자손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다자손으로서 야베스의 위치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은 야베스에 거했던 디랏 족속, 시므앗 족속, 그리고 수갓 족속이 서기관 족속으로서 겐 족속에게 속한다는 사실 뿐입니다. 원래 겐 족속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닙니다. 이들은 모세의 장인 겐의 후손들이었습니다(삿 1:16).

그러나 애굽에서 나온 후 이스라엘은 타민족이라 할지라도 그들 중 여호와 신앙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이스라엘에로의 귀화를 허락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겐 족속은 이방인의 신분으로 여호와 신앙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지파를 형성한 민족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하나님의 손에 의해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똑같은 조건을 지니고 태어났지만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인생은 모두가 이방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앙은 이방인의 개념을 바꿔놓습니다. 바로 내 자신이 이방인이며 우리 모두가 이방인이지만, 누구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곧 구원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동일한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이방인의 민족에 머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족 중에 이방인이 있거나 않습니까? 겐 족속에게 주셨던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가정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 기도 / 우리 가정이 구원의 큰 기쁨을 함께 나누도록 역사하소서. 당회장 신성종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케 하셔서 폭탄적인 말씀의 능력을 주옵소서.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이 이러하니 맏아들은 압논이라』(3:1)

결혼제도는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인류 최초의 제도입니다(창 2:18). 따라서 인간은 누구나 적령기에 이르면 결혼할 자유와 권리가 있습니다(고전 11:11). 성도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혼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에 왕들이 많은 여인들을 거느린 것은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인간의 제도입니다. 범죄하기 전 에덴 동산에서는 일부일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타락한 인생들은 자신의 쾌락을 절제하지 못하여 많은 불의의 씨앗을 뿌리게 되었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역사적 혼란이 이들 속에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구속의 역사를 베푸셨습니다. 선택된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원하시는 제도가 회복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마태복음 19장 4~6절에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잊지 못하였느냐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지니라”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결혼제도를 철저하게 지켜야 합니다. 특별히 성적 문란을 겪고 있는 현대에서 성도들만이라도 이 제도를 순수하게 지켜 보존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혼, 그리고 복받는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 기도 / 이 세상에서 성실한 결혼생활을 통해서 작은 천국을 이루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신앙의 장부가 되어 마귀를 대적하여 무찌르고 주신 사명 감당하여 맡겨주신 제2회 예수사랑 큰 잔치가 차고 넘치는 열매를 맺게 하소서.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4:10)

야베스란 고통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가 이러한 이름을 갖게 된 이유를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그 중의 하나는 많은 환난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러한 환경으로 인하여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는 악조건을 역전시킬 수 있었던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야베스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야곱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하기를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의 기도 속에는 결코 의심의 그림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가 참으로 언약의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가 구한 대로 다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즉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했을 때 그는 자신의 고통을 극복하고 넓은 지경을 차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어느 형제보다 더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자신의 어떠한 환경도 탓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말씀으로 언약하신 하나님을 확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므로 응답을 받는 생활을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의 교훈을 따라 쉬지 말고 기도하는 참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 기도 / 언약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기도를, 진정 사랑하는, 자원하는 심령의 기도를 하게 하소서. 모든 교역자들이 양떼에 관심을 두며 목자장되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선한 목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위에 녹명된 자는 다 그 본족의 족장이라 그 종족이 다 번성한지라』
(4:38)

오늘 본문은 시므온지파에 대하여 호의적으로 기록을 하며 그들의 신앙적 용기가 부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그들의 모습은 광야에서 음행죄를 범한 지파입니다(민 25:1, 6). 그 결과 첫번째 인구조사 때에 59,300명이었는데 22,200명으로 그들의 인구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땅 분배도 받지 못했습니다. 유다지파가 소유한 땅에서 더부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사실들이 하나님의 징계라는 현실을 받아드렸습니다. 그들의 처지를 인정하고나서 그들은 다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성장은 현재를 인정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현재의 사정이 어떠하든 그것을 과거의 산물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발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처지만을 인정하면 된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현실에 안주하는 발전없는 모습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 속에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때로는 엄청난 대가를 치루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비록 시므온지파의 환경이 그들의 범죄함으로 인해 열악했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나아가 자신들의 처지를 개선하고자 싸웠습니다(42절). 이것이 그들이 가진 신앙적 용기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며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로부터 오는 참 신앙의 용기를 소유하기를 바랍니다(시 121편).

▶ 기도 / 참 신앙의 용기를 소유하게 하소서. 부족함 없는 믿음의 덕과 섬김으로 앞장서는 모든 당회원들이 되게 하소서.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 함께 한 자들이 다 저희 손에 궤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셨음이라』(5:20)

이 세상에는 크고 많은 전쟁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평안하다고 생각할 때에 대적들은 전쟁을 준비하여 기회를 틈타 쳐들어옵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가지지 못한 자들이 생존을 위하여, 혹은 독재 군주의 정복욕, 혹은 나라와 민족간의 불화 등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상대가 도덕적, 윤리적으로 타락되고 사회 기강이 해이해지며, 정신적 공백기에 침략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 있어서 그것이 완전히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으며, 방자히 행하고,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은 참고 참으시다 진노의 채찍을 높이 드시되 이웃 이방을 들어서 침입하여 노략하게 만드십니다. 노략당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돌아올 때에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어루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싸움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고 했습니다(5:22). 즉 싸움은 하나님의 정계의 수단과 도구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일지라도 부패할 때 하나님은 그 정권을 붕괴시키십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은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되 마귀의 꾀계를 물리치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합시다.

▶ 기도 / 매일매일 영적 전쟁,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소서. 교회의 모든 직원들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하시며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과 감격으로 살게 하소서.

『언약제가 평안한 곳을 얻은 후에 다윗이 이 아래의 무리를 세워 여호와의 집에서 찬송하는 일을 맡게 하매』(6:31)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은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보다 족보 보존에 큰 관심을 두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그들의 가진 직무로 말미암아 영광과 특권이 있었으며 그것은 혈통으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레위 족속의 제사장직 시작은 40년 광야생활 중 제사장의 직분을 위임받고, 성막과 성소의 성물들을 운반, 관리, 집행을 해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법궤를 위시한 성물에 관한 직무가 끝나자 레위 자손들에게는 또 다른 직무가 주어졌습니다. 그 직무는 노래 즉, 찬양하는 직무였습니다. 레위인들은 그들의 무거운 직무를 떠나 휴식을 얻게 되었을 때에 영원한 노래를 부르는 일에 사용받았습니다.

이 노래 부르는 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될 때까지 성막에서 그 일을 봉사했고, 장엄하고 훌륭한 성전에 있을 때에도 성막에서 행한 것과 같이 그들의 직무와 순서를 엄밀히 준행하였습니다.

종교개혁 이후로 만인 제사장 제도를 교리로 받아들이는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과 일대일로 대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며 교회를 다니는 성도는 모두가 하나님의 구별된 레위 족속과도 같습니다. 세상과 구별되며 죄악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빛과 소금으로 우리의 생애를 살기로 결심합시다.

▶ 기도 / 교회의 보이지 않는 구석구석에서 봉사하시는 분들과 함께 하여 주시어서 더욱 성결한 삶을 살게 하소서. 교회의 모든 위원회가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성장하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자손이 이 모든 성과 그 들을 레위 자손에게 주되』(6:64)

오늘의 본문에는 레위 사람들의 성읍에 관한 내용이 언급됩니다. 본래 레위 지파에게는 토지의 분깃이 없습니다.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뽑혀진 지파이기에 그들의 전 생애를 하나님과 성전을 위해 봉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가나안에 정착하여서 토지를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각각 다른 지파의 성읍들 중에서 제비 뽑아서 거주할 수 있는 성읍을 분배받았습니다.

레위 지파에게 기업과 직업이 허락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인 동시에 그들의 보호자이셨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지파는 모여서 사는데 레위 지파는 흩어져서 다른 지파의 성읍에 거하는 것이 레위 지파의 특징입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온 지파에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율법에 관한 지식을 전파하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지파들은 자기들의 영토 안에 레위 지파의 성읍들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레위 지파의 직책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신앙을 위하여 흩어져서 그 책임을 감당하였으며 모든 족속들은 레위 지파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십일조와 헌물과 성전의 소유된 토지와 성읍이 레위 지파의 생활 수단이었으며, 더 나아가 하나님이 그들의 전부였습니다. 우리의 기업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 기도 / 한국 교회를 위하여 말씀의 사역을 맡으신 모든 목회자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방패가 되시고 개척 교회, 농어촌 교회와 함께 하옵소서. 교구일꾼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며 저들의 수고로 각 교구가 배가하게 하옵소서.

『그 형제 잇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 큰 용사라 그 보게 대로 계수하면 팔만 칠천인이었더라』(7:5)

오늘의 본문에는 잇사갈 지파의 족보와 베냐민 지파의 족보가 언급되며 납달리 지파의 족장 이름과 므낫세 지파의 족보가 등장됩니다.

본문의 족보엔 여러 사람이 등장됩니다. 잇사갈 지파에서는 전쟁 참여 가능자가 팔만 칠천명이 계수되며 베냐민 지파에서는 오만 구천 사백 삼십 삼명이 계수됩니다.

오랜 세월이 경과하면 많은 사람의 이름이 잊혀지듯이 본문에서 계수된 사람을 우리는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위의 사람을 의식하며 살고 불필요한 것에 우리의 관심이 집중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얼마가지 못하고 후대의 사람들은 모두 잊어버리되 우리와 우리의 행동들을 잊어버립니다. 다만 한 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기억하십니다. 기억하시되 우리의 명예나 권력, 소유보다는 주어진 생을 얼마나 충성되이 살았는가를 보십니다. 주위를 의식하는 것은 최소화하며 하나님을 의식하기를 최대화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라틴어에 코람데오(Coram Deo)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뜻은 '하나님 앞에서' 라는 뜻입니다. 무슨 일을 하거나 생각조차도 하나님 면전의 식을 가지자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점 부끄럼없이 생활하는 우리가 되도록 다짐합시다.

▶ 기도 / 살아 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더욱 느낄 수 있도록 영의 민감함과 분별력을 주옵소서. 찬양대원들의 삶을 축복하셔서 참 기쁨으로 부르는 그들의 찬양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 아들은 눈이요 그 아들은 여호수아더라』(7:27)

에브라임 지파의 초창기에는 환난이 많았습니다. 가드 사람과 블레셋 사람, 그리고 장대한 자들은 그 가문의 많은 아들들을 죽였습니다.

창세기 48장 19절에 보면 에브라임의 씨앗이 “큰 족속”이 될 것으로 예언하였으나 그 약속은 봉우리채 짓뭇개져 버리고 하나님의 섭리가 모순이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시련이 클수록 그 후의 영광은 더욱 더 부각됩니다.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 다른 씨” 셋을 주신 하나님(창 4:25)이 에브라임에게도 노년에 다른 자손을 주셨습니다. 어느 정도 그 재앙을 회복하게 해주셨습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하여 주시며, 크신 능력인 십자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곤고한 날 수 대로 기쁘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그의 큰 거룩한 섭리 가운데 있어 은혜의 온화함을 체험케 됩니다.

환난과 고통은 아담 이래로 죄 지은 인간에게 차별함이 없이 찾아옵니다. 그러한 것들을 이기는 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죄악의 문제가 해결될 때에 가능해집니다. 하나님은 에브라임 지파를 축복하셔서 모세를 이을 민족의 지도자 여호수아를 배출시켜 주셨습니다.

에브라임 자손은 가나안 입성의 원년을 장식하며 기뻐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힘들고 곤고합니까?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 기도 /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힘과 용기와 믿음을 주옵소서. 특히 육체의 연약함으로 쓰러진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교회학교 교사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지혜롭고 능력있는 선한 목자가 되게 하옵소서.

『베냐민의 낳은 자는 말아들 벨라와 둘째 아스벨과 세째 아하라와』(8:1)

세상 사람들은 가문과 혈통을 중요시합니다. 동물에 있어서도 순종의 혈통을 선호하여 비싼 가격을 주면서 찾습니다. 식물도 좋은 품종을 만들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경주합니다.

성경 본문의 베냐민 지파의 족보를 대하면서 성도는 믿음의 족보에 관심을 두어야 겠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족보라 하면 내가 누구에 의해서 예수를 믿었으며 나의 가정은 몇 대째 예수 믿는가를 따져보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선조 중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얼마나 충성하고 봉사하였는가를 기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믿음의 족보는 어디에 사용하겠습니까? 믿음의 족보는 조상이나 자신의 자랑을 위하여 사용하면 큰 실수입니다. 동식물도 품종 개량을 위하여 족보를 찾는다면, 믿음의 사람들은 신앙의 품종 개량 즉 더욱 더 순전한 믿음을 위하여 믿음의 족보를 활용해야 겠습니다.

예수님 믿은 지가 오래된 가정이 있습니까? 더욱 더 믿음의 진보를 성령의 열매로 나타냅니다. 나 혼자 예수님 믿는 외로운 분이 있습니까? 내가 믿음의 족보에서 조상이 될 수 있도록 좋은 믿음의 덕을 끼쳐놓읍시다. 그리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믿음의 자녀들을 많이 낳아서 양육합니다. 다가오는 93 예수사랑 큰 잔치(10월 17일)를 통하여 믿음의 족보를 만들어봅시다.

▶ 기도 /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인도와 사랑으로 연약한 나의 모습을 통하여 믿음의 자손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함께 하소서. 남녀전도회가 본래의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여서 예배당에 빈 자리를 가득 채우고 넘치게 하옵소서.

『유다가 범죄함을 인하여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9:1)

성경 전체로 살펴볼 때 유다의 범죄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의 범죄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형식과 거짓으로 섬겼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들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제사 지내는 우상숭배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는 그들의 자세는 하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다음으로 그들은 인간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보아야 했으나 아무런 힘 없는 그들을 돌보지 않고 무시했습니다. 정의를 지키고 질서를 존중하며 살아야 했으나, 무질서하고 불의하게 살아갔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대 명령을 완전히 어기고 범죄한 그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범죄한 유다에게 바벨론 나라에 잡혀가서 70년간 고생하며 지내는 회초리를 드셨던 것입니다. 이제 그 징계의 기간이 끝나고 (그들도 회개를 했고) 고국으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그들은 다짐했을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리라고 말입니다.

나는 참되게 준비하고서 예배 모임에 참여하며, 나는 이웃의 고통을 바라보며 동참해야 할 부분에 동참하고 있습니까?

▶ 기도 / 성도로서의 구별된 삶을 위해서 하루하루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성결한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 서만수 선교사(인도네시아)의 사역을 축복하사 개척된 67개의 원주민 교회에 원주민 일꾼들을 세워 주옵소서.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족장이라 저희가 골방에 거하여 주야로 자기 직분에 골몰하므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9:33)

오늘 읽은 말씀에 의하면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이 70년만에 돌아와서 각자 맡은 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문지기에 대한 항목은 17 - 27절까지입니다. 어떤 이는 성막문을 지켰고(19절), 어떤 이는 회막 문지기 역할을(21절), 레위인 네 명은 하나님의 전 모든 방과 공간을 지키며 아침마다 문을 열었습니다(27절). 또 어떤 이는 향기를 만드는 일을(30절), 남비에 지지는 일을(31절), 떡을 진설하는 일을 안식일마다 맡았습니다(32절).

이처럼 그들은 각자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모두가 눈이 되려고 하거나, 손이 되려고 하면 이것은 큰일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는 것입니다(고전 12:12). 서로를 존중하고 협력해야 하는 것이지 서로 무시하고 비협조적이어서는 안됩니다(고전 12:27).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로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라는 큰 의미에서 볼 때 내가 하고 있는 평생의 일에 사명을 가지고 충성과 노력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교회의 교인이라는 의미에서 볼 때, 맡은 바 교회의 직분에 충성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 기도 / 나는 내가 맡고 있는 일(사회적, 교회적, 가정적)에 온전히 충성하여 신실하다 칭찬받는 자가 되게 하소서. 육호기 선교사(독일)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프랑크푸르트 한인 교회에 지속적인 성장과 부흥을 주옵소서.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 하였음이라 저가 여호와와 말씀의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10:13)

이스라엘의 첫번째 임금인 사울은 처음에는 겸손과 순종으로 시작하였으나, 마지막에는 교만과 불순종으로 얼룩진 모습으로 생을 마치고 말았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볼 때, 사울은 원수 블레셋의 손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기 바로 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의 목을 베고 그의 옷을 벗겼습니다. 사울의 죽음은 비참한 죽음이었습니다. 이는 그가 비참하게 죽었다는 바로 그 자체 보다는, 그의 죽음의 의미가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되어진 일이었기에 비참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순교의 죽음을 당하는 사람은 사울의 죽음보다도 더 비참한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의 의미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이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사울처럼 불순종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목숨을 걸고 불순종하지 말고, 목숨을 걸고 최후의 순간까지 순종하여야 하겠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며, 불순종은 우상숭배죄라고 하였습니다. 순종못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목숨 걸고 그 것을 순종합시다.

▶ 기도 /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더욱 사랑하며 충성하며 순종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이준교 선교사(이집트)의 사역을 통해 카이로의 200만 수단인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11:9)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초강력적인 백(Background)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권세 있는정치가, 또는 돈 많은 사업가, 또는 학식이 많은 학자와 가깝게 지내고 싶어합니다. 물론 이것들이 중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이런 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생명의적으로 중요한 것은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시는 일입니다. 모든 것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시지 않으면 그것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다 하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시면 그것은 천국입니다.

다윗은 점점 강하여져 갔다고 했습니다. 점차 그의 삶에서, 그의 인격에서, 그의 활동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났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할 때, 그 증표가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다윗의 경우 그것은 다윗 앞에 모든 백성이 굴복하는 것이며 그의 세력이 강화되는 것이었습니다.

나에게는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어떤 증표가있습니까?

▶ 기도 /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믿고 환경, 상황에 낙담하지 않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소서. 김주경 선교사(이스라엘)의 사역을 축복하시고 성지연구소를 건립케 하시며 한인 교회 사역에 부흥을 주옵소서.

『가로되 내 하나님이며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갇던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이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 아니하니라』(11:19)

블레셋 군대와 전쟁할 때의 일입니다. 블레셋 군대는 베들레헬 곁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임금은 베들레헬 성문 곁의 우물물을 마시고 싶었습니다. 그러자 세 명의 장군들이 나가서 블레셋 군사를 치고 우물물을 길어 왔습니다. 그 때 다윗은 그 우물물을 마시지 아니하였습니다. 대신에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은 하지 아니하리이다”라고 반성과 결심을 하였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볼 때, 다윗의 행위는 조금은 변덕스럽게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한때는 적군의 손아귀에 있는 우물물을 마시고 싶다고 하고, 그래서 천신만고 끝에 길어 오니까 이제는 안 마신다고 하니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의 반성은 잘한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자신의 독특한 목마름을 그렇게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너무나도 이기적인 생각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다윗은 늦게나마 하나님 앞에서 그 잘못을 파악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살지 않으면 바로 살 수 있는 가망이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비로소 잘못을 깨달아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만이 혹은 우리 가정만이 가지고 있는 이기적 생각이나 행위는 무엇입니까?

▶ 기도 / 많은 것 중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한 분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바라보게 하소서. 김은태 선교사(홍콩)의 사역에 함께 하시고 TWR 방송 사역을 통해 중국 대륙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복음의 씨앗이 되게 하소서.

『다윗이 나가서 맞아 저희에게 일러 가로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와 연합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붙이고자하면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12:17)

베냐민과 유다자손이 다윗에게 속하고 싶어서 자진하여 나올 때에 다윗이 한 말입니다. “만일 너희가 평화로운 자세를 가지고 나를 도우려 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나,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서 나에게로 나 온다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시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나는 정당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정의 개념이 좀더 강해야 되겠습니다. 차선이나 신호를 대충 지키면서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이 현실입니다. 거의 다들 그런 식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질서의식에서 앞서야 합니다.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소금이 되는 것은 자기 희생과 손해봄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으니, 참 맛 내는 소금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한국이 살아 남으려면 소돔, 고모라 땅에 필요한 의인 10명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야 합니다. 한국의 소망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언행심사에서, 생업에서 불의한 것을 찾아내어 성령의 불로 태우고, 좀더 의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날마다 의로워져야 합니다. 속 사람의 평균 점수가 십자가 밑에서 자꾸만 높아져야 합니다.

▶ 기도 / 나를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그릇이 되도록 회개의 영, 기도의 영을 주셔서 통회자복하여 씻음 받게 하소서. 김창수 목사(수리남)의 현지 적응과 언어 훈련을 도우시고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이스라엘 가운데 희락이 있음이었더라』(12:40)

본문 말씀은 다윗 왕을 추대하기 위해 많은 지파 사람들이 헤브론에 모였을 때 아름다운 잔치가 벌어진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울이 다스려온 40년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갖은 고생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백성이 다윗에게 찾아온 지금 그들 가운데는 큰 희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큰 축제가 벌어진 것입니다.

이 축제는 다윗을 왕으로 삼기 위한 축제였습니다. 다윗을 위해 모인 군사들은 추호도 흐트러짐이 없이 질서 정연하게 모여선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다윗의 명령만 떨어지면 언제나 출격할 수 있었고 목숨을 내놓고 싸울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한 마음으로 다윗을 성심으로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주의 군사된 우리도 두 마음을 품을 수 없습니다.

또 이 축제는 쓸 것을 서로 공급하는 축제였습니다. 이들은 강요가 아니라 스스로 자발적으로 필요한 음식을 공급했습니다. 왕을 위한 자신들의 봉사가 무엇인가 생각하여 물건을 공급했습니다. 그리고 이 축제는 희락이 있는 축제였습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지도자를 왕으로 삼게 되자 기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잔치는 희락을 위한 잔치입니다. 그러나 그 희락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다윗의 보좌가 이스라엘에게 기쁨을 준 것처럼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 기도 / 하나님여, 그리스도를 모신 성도들에게 참된 기쁨과 평안을 주옵소서. 유병세 평신도 선교사님(일본)과 사모님(이운호 권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선교 사역에 구체적인 열매를 주옵소서.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음 인하여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라 치시매 웃사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13:10)

본문은 법궤 이동에 관한 교훈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자마자 가장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블레셋에 있던 법궤를 종교의 중심지 예루살렘으로 옮기려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이러한 순수한 열정과 기쁨은 언약궤 운반 도중에 일어난 웃사의 죽음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삼시간에 축제 분위기는 공포의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이스라엘 회중들을 향해 진노하신 것이며 그들의 일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뜻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웃사의 신성모독적 행위로 말미암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잘못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본래 법궤는 제사장 외에 어떤 사람도 만질 수 없는 성물이었고 반드시 어깨에 매어 옮기도록 되어 있는데 이 규례를 어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적 생각으로 블레셋 이방 사람들이 했던 방식을 좇아 수레에 싣고 소가 끌도록 한 것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단순한 열정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관계를 회복하고 신정국가를 건설하려는 선한 목적에도 불구하고 그 방법이 하나님의 선하신 것이 아니었기에 불행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순수한 신앙 동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이 요구됨을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 기도 / 하나님이며,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만으로 진행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기성·박정아 평신도 선교사(호주)의 현지 적응, 언어 적응, 교회 적응 등이 순탄하게 하시고 구체적인 사역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14:15)

본문은 블레셋에 대한 다윗의 승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다 하는 소식이 전해지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을 두려워하여 다윗 왕국이 자리를 잡기 전에 무너뜨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즉각 그의 왕권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공격해왔고 또 재차 침범해왔습니다.

다윗왕은 곧 바로 하나님께 겸손히 기도했습니다.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소년 시절 골리앗과 싸울 때부터 전쟁의 승패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알았던 다윗은 자기의 경험이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므로 두 번의 전쟁을 큰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전략을 세워 다윗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보다 앞장서 나가 싸우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전략을 세우시고 싸우신 전쟁의 승리의 영광은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리고 순종했던 다윗에게로 돌아갔습니다. 17절에 보면 다윗의 명성은 열국에 퍼졌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위대한 용사로 강력한 군주로 소문이 났습니다. 다윗의 명성이 열국에 퍼지자 하나님이 존귀를 입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최선의 방법과 수단으로 생각하는 성도는 어떤 일에서나 승리한다는 사실을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 기도 / 살아 계신 하나님! 이 나라의 어둠과 죄악을 도말하시고 위로부터 재를 뿌리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게 하소서. 김형선·한영자 평신도 선교사(뉴질랜드)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현지 적응과 언어 훈련이 속히 이루어져 선교 사역이 뿌리를 내리게 하소서.

『가로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댈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저희를 택하시라 하나님의 궤를 메고 ……』(15:2)

본문은 다윗이 다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기록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옮기고자 하는 다윗의 열정에도 불구하고 그 일은 순조롭지 못하여 웃사가 죽는 참극을 빚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법궤를 사모하는 다윗의 열정은 다시금 불붙어 올랐고 드디어 하나님의 명하신 규례 대로 옮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영광을 받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먼저 법궤를 운반하기 전 법궤를 안치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고 장막을 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한 규례에 따라서 운반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윗은 인간적인 편의주의를 버렸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청산하고 율법이 정한 대로 레위 지파의 고핫 자손들로 하여금 법궤를 메도록 했습니다. 규례대로 준비가 끝난 후 행렬이 이루어졌습니다. 행렬을 시작할 때 도움을 구하는 희생제사를 드렸습니다. 노래하는 자들과 비파와 수금 등의 연주자가 준비되었습니다. 그리고 법궤를 메고 고핫 자손들은 자신들의 몸을 성결케 하였습니다.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그 몸과 마음이 성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법궤를 진행시켰습니다. 다윗은 친히 나아가 춤을 추며 찬양했습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영광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 기도 / 하나님여! 우리의 생각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돌리는 충현의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김철영 평신도 선교사(일본)의 일본(오사카) 출국 준비가 순조롭게 준비되게 하소서.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이다』(16:8)

본문은 다윗이 법궐의 안치와 제사를 끝낸 후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사의 노래입니다. 다윗은 먼저 주께 감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렸습니다. 여호와께 합당한 영광을 돌렸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항상 감사와 그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다윗은 또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 모든 기사를 말하라고 했습니다. 성도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늘 찬양해야 하고 하나님의 그 높고 위대하심과 그의 업적을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0여년간 종노릇 했던 애굽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낸 여호와의 구원을 찬양했습니다. 이처럼 구원받은 우리들은 우리를 구원해주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십자가의 사랑을 늘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행하신 모든 기사를 말하고 전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천지창조, 하나님의 구원을 만백성들에게 증거해야 하고 전도해야 합니다. 다윗은 또 항상 여호와와 그의 능력과 그분의 얼굴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한시라도 그 분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축복과 물질, 건강의 축복을 위해 그 분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생명과 힘과 능력으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을 만족케 해주실 것입니다.

▶ 기도 / 하나님이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심을 감사합니다. 고은빈 평신도 선교사(케냐)의 현지 적응을 도우시고 나이로비 선교팀과 협력 선교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다윗이 그 궁실에 거할 때에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거늘 여호와와의 언약궤는 휘장 밑에 있도다』(17:1)

본문은 다윗왕의 아름다운 신앙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먼저 다윗은 하나님 제일주의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절에 보면 다윗이 아름답고 웅장한 백향목 궁전에 살면서 여호와와의 언약궤는 천막에 모시고 있는 것을 너무도 죄송하게 생각하여 그는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의 백향목 궁전보다 더욱 훌륭한 성전을 지으려고 마음먹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일할 때나 편히 쉴 때에도 항상 하나님만 생각하는 종이었고 그것도 자신의 궁전보다 더 나은 것을 지으려는 하나님 제일주의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하여 돌과 철과 못과 백향목 그리고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를 준비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룩한 마음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너는 군인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므로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시며 성전 건축을 허락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이때 참신앙을 보여 주었습니다. 아무런 불평도 원망도 하지 않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여 솔로몬에게 성업을 물려 주었습니다.

위대한 신앙은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신의 뜻을 꺾는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에 대해 하나님은 대신 더 많은 축복으로 보답해 주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다윗과같이 하나님 제일주의와 하나님 뜻만 존중히 여기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 기도 /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만 존중히 여기는 신앙을 주옵소서. 돕고 있는 모든 개척 교회와 미자립 교회 위에 영적, 숫적, 재정적 부흥을 주시어서 주는 교회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18:6)

오늘 본문은 다윗이 주변의 모든 이방나라를 물리치며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 다윗은 블레셋을 쳐서 항복을 받고 그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는 내용이 나옵니다. 본문은 아주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사무엘하 5장 17절부터 25절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승리의 비결은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였기 때문입니다. 19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하며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도의 사람 다윗에게 하나님은 대적들을 물을 흠음같이 흘으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대적을 파하기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세상적인 권세로 승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만 의지하였고 이러한 다윗을 하나님은 도우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요절 6절의 말씀은 18장 13절에도 기록할 정도로 역대기 저지는 다윗의 승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변 국가를 정복함으로 다윗은 많은 노획을 거두어 더욱 부강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많은 병거와 금방패와 낫과 은을 조공으로 받았으며 받은 조공물을 하나님께 드리며 전쟁을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오늘 우리도 다윗과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바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의 축복을 안겨 주실 것입니다.

▶ 기도 모든 대적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옵소서. 사랑부와 에바다부원들에게 더욱 크신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을 내리시어 기쁨으로 생활하게 하소서.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의 도망함을 보고 저희도 요압의 아우 이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으로 들어간지라 이에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 라』(19:15)

본장에는 다윗이 암몬과 아람을 격파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전쟁은 다윗의 호의를 악으로 갚은 암몬 왕 하눈의 배신으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이전에 암몬왕 나하스에게 어떤 은혜를 입은 일이 있어 나하스가 죽자 그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 조문 사절단을 보내었습니다. 그러나 암몬 왕 하눈은 다윗의 사신들을 붙잡아 그들의 수염을 강제로 깎고 엉덩이 부분에서 그들의 옷을 잘라 하체가 드러나게 한 뒤 이스라엘로 되돌려 보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선을 악으로 갚는 악인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수치와 모욕은 이스라엘의 수치이며 만군의 하나님께 대한 모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분노를 사게 된 암몬 백성들은 은 1,000 달란트를 주고 아람으로부터 병거와 마병을 고용하며 저들과 연합하여 이스라엘을 친 것입니다. 이러한 악인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진노의 심판을 하셨습니다. 결국 군사력의 우세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이스라엘 군대에게 대패하여 도망하였던 것입니다.

본 장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다시 한 번 볼 수가 있습니다. “악인이 의인 치기를 꾀하고 향하여 그 이를 가는도다 주께서 저를 웃으시리니 그 날의 이름을 보심이로다”(시 37:12,13),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시 37:17)

▶ 기도 / 내 속의 모든 악을 제하여 주옵소서. 지구상에 있는 수 많은 난민과 기아들에게 떡과 복음과 평화를 풍성히 주옵소서.

『가드 장대한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복의 손에 다 죽었더라』
(20:8)

이스라엘이 암몬을 정복한 후 블레셋과 세 차례의 전투가 있게 되었습니다. 첫번째 전투에서는 르바임 족속의 거인 십배가 나왔으나 이스라엘의 십브개에게 죽임을 당하고 블레셋은 항복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 다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골리앗의 아우인 라호미가 출전하였으나 엘하란에게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 전투에서 손가락과 발가락이 6개씩인 도합 24개인 거인이 출전하였으나 다윗의 조카 요나단이 물리쳤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육체의 크기와 근육의 힘에 의지했던 블레셋 군대의 패배를 눈여겨 보아야 할 것입니다. 거인을 이긴 사람들이 소개되었는데 하나같이 다 하나님의 힘을 의지했다는데 승리의 비결이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육신적으로 아무리 크고 힘이 강하다고 할지라도 영적인 힘이 없다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지식의 힘, 물질의 힘과 육체의 아름다움은 들의 풀과같이 쇠잔하여 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가정, 사업, 인생의 그 모든 것을 세상적인 힘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길은 형통해질 것입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더라는 말씀을 생각하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 기도 / 의지할 바 없는 사람과 육신을 의지하지 않게 하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그 풍광으로 인해 더욱 주님께 가까이 가게 하옵소서.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21:1)

다윗은 나라가 점점 더 강성하게 되자 인구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인구조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기 보다 이스라엘의 국력이나 군사력을 더 과시하고 의지하려는 교만한 마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사단이 그의 마음을 격동했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점점 강성해져가는 다윗에게 자기의 업적을 돌아보고 과시하고자 하는 충동을 일으키게 한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에 교만을 불어 넣어 그를 넘어뜨렸습니다. 진실로 교만은 사탄을 기쁘게 하고 겸손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다윗의 인구조사를 패شم히 여겨 징벌을 내리셨습니다. 다윗은 3일간의 온역을 선택하였는데 3년간의 기근이나 3개월간 대적에게 쫓기는 것을 택하지 않은 이유는 사람에게 벌을 받기보다 직접 하나님께 벌을 받기 원했던 까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 중 7만 명이 죽임을 당하였고 다윗은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며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며 단을 쌓았습니다. 다윗의 철저한 회개와 겸손으로 하나님은 그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다윗의 인구조사에서 우리는 자신의 교만을 버리고 사탄의 계획을 물리치며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라는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설령 죄를 지었는지라도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긍휼에 감사하는 성도가 됩시다.

▶ 기도 / 교만히 행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모든 미전도 족속에게 하루속히 생명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주의 일꾼들을 보내소서, 준비케 하소서.

『다윗이 가로되 내 아들 솔로몬이 어리고 연약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전은 극히 장려하여 만국에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22:5)

22장에서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될 성전의 모든 재료를 준비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비록 자신이 직접 성전을 짓지 못하게 되었을지라도 성전 건축을 위하여 정성껏 준비하였습니다.

여기서 다윗의 위대한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과 명예에 급급하지 않고 후계자를 위하여 준비하는 넓은 마음을 가진 훌륭한 인격의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뜻이 있었으나 하나님은 다윗이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었기에 허락하지 않았을 때에도 그는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것입니다. 자기가 이루려 했지만 이루지 못할 때 모든 것을 포기할 만도 한데 다윗은 자신이 하지 못할지라도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짓게 될 성전은 세상의 어느 것보다도 더 훌륭하고 정성스럽게 지어져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최고의 좋은 재료를 마련했던 것입니다. 그의 준비는 결코 풍부하고 안일한 가운데서 준비한 것이 아니라 환란 가운데 있을 때 힘을 다한 것입니다. 본문 14절에도 내가 환란 중에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하여 준비하듯이 우리의 후손에게 남겨줄 유산, 즉 믿음의 유산을 물려 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정성껏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준비하는 인생이 됩시다.

▶ 기도 / 하루 하루 하나님 앞에 준비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북한 선교의 문을 열어주시고 복음으로 이 민족이 통일되어 쓰임받는 민족이 되게 하소서.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에게 수종들어 여호와와 그의 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케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일과』 (23:28)

앞의 22장에서 성전 건축을 위하여 정성껏 준비한 다윗은 이제 성전내의 여러 가지 직무를 수행하는 방법과 그 일을 분담할 일꾼들을 선정하였습니다. 성전의 건물만 준비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봉사할 일꾼들을 먼 안목으로 내다보았습니다. 그의 지혜와 주도면밀한 면을 엿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훌륭한 자재로 화려하고 웅장하게 건축되었다 할지라도 봉사하는 일꾼들이 신실하지 못하다면 결국 교회는 어려움을 겪게 되고 문제가 발생하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봉사할 레위인들의 임무는 제사장들을 돕는 일이며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며 성물들을 정돈하고 제사의식에 필요한 것을 잘 준비하여 제사를 드리는 일에 지장이 없게 하는 일이며 제물로 드려지는 것의 무게와 치수가 정확한지 판별하며 새벽과 저녁 제사 때에 찬양을 담당하는 일이었습니다. 또한 성전의 문지기 노릇도 담당하며 제사에 합당하지 못한 자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의 성도들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따라 재능을 발휘하여 봉사하여야 합니다. 힘이 없다고 주저하거나 어리다고 일을 기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섬기는 일에 각자가 부여받은 직분이 무엇이든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 충성해야 할 것입니다.

▶ 기도 / 주신 사명을 인간적인 명예나 감투로 생각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충성심을 주옵소서. 이 달에도 함께 하신 주님 10월에도 함께 동행하소서.

제1과

전도하지 않는 죄

· 본문 : 고전 9 : 11-27 · 찬송 : 268장, 273장

· 요절 :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로다』(고전 9:16)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으며 전도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규정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되는 것일까요?

1.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며, 이를 위하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벧후 3:9 ; 요 3:16).

예수님께서도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 아홉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고 하셨습니다(눅 15:7). 이렇듯 전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며, 또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막 16:15) 이기에, 그 뜻을 이행치 아니하면 그것이 곧 불순종이요, 죄가 되는 것입니다.

2. 불신자 편에서 불신자는 영적 고아이며, 영적 병자입니다.

불신자들은 불신앙 가운데 계속 거할 때 그들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

는 불쌍한 인생들입니다. 이들에게 우리들이 전도하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불고지죄(不告知罪)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에 관한 진리를 알면서도 전도를 하지 아니한다면 그것이 곧 사회에서 말하는 불고지죄가 되는 것입니다(약 4:17).

3. 신자 편에서 전도하지 않는 것이 왜 신자들에게 죄가 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들이 전도할 사명을 맡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당연히 할 일이며, 나아가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명의 인식입니까? 교회는 전도의 대리자요, 신자는 전도의 사명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이 지상명령(마 28:19,20)은 어떤 이유로도 거부되거나 경시될 수 없습니다.

· 적용 및 기도

『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인생을 이같이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의 사랑과 구원의 은총에 우리 자신이 늘 감격하게 하옵시고, 이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여 올가을에 신령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제 2 과

성도의 축호전도

· 본문 : 마 10 : 11-15 · 찬송 : 268장, 259장

· 요절 :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마 10:12)

축호전도란 집집마다 다니면서 전도한다는 뜻입니다. 축호전도는 예수님께서 친히 사용하신 것이며, 전도의 방법 중에서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효과적으로 축호전도를 할 수 있을까요?

1. 합당한 자를 찾으라

본문 11절에 보면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서 그 중에서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라고 하였습니다. 아무 동네나 들어가서 가정마다 복음을 전하는 중 그 가운데서 합당하다고 발견될 때 비로소 전도 대상으로 확정지어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를 나가기 전에 합당한 자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며, 합당한 자를 발견하면 그를 상대로 하여 집중적으로 전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2. 그 집이 평안하기를 빌라

본문 12절에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고 하였습니다. 평안은 평강, 평화와 같은 뜻으로 사용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

부터 가지기 원했던 이상이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평안은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나누어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전도자가 대상자의 집에 들어가면서 그 집안 식구들의 평안을 빌어주는 일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호감을 갖게 하고 관심을 집중시키는 것입니다.

3.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을 받는 자입니다

합당한 가정을 만나서 그 가정을 위하여 빌어준 평안이 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의 기쁨을 얻게 된다면 성도로서 그보다 더 큰 보람은 없을 것입니다. 만일 그 가정이 빌어준 평안을 받기에 합당치 아니하다면 축복을 빌어준 자신에게 돌아올 것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열심히 전해주고 빌어주는 복된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 적용 및 기도

『전능하신 하나님! 전도의 효과적인 열매를 얻기 위하여 축호전도를 열심히 하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전도 대상자를 정하며 그 가정을 위하여 축복과 평안을 빌어주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나에게도 예수 사랑 큰 잔치에 초청할 대상자를 10명 이상을 주옵소서』

제 3 과

하나님의 집을 채우자

· 본문 : 눅 14 : 15-24

· 찬송 : 255장, 257장

· 요절 :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눅 14:23)

이 세상에는 아직 전혀 복음을 들을 기회를 갖지 못한 사람과, 듣고도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민족 복음화라는 중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 교회는 “예수 사랑 큰 잔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큰 잔치에 이웃을 데려다가 교회를 가득히 채울 수 있을까요?

1. 주인의 명령을 따라 사거리로 나가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채우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든지 초청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21절). 여기에 초청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든지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온 성도들은 주인이 종들에게 명할 때 종들이 핍제하지 않고 사거리로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잔칫집을 가득 채웠듯이, 우리가 주의 집을 가득히 채우기를 원한다면 주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해야 합니다.

2. 만나는 사람마다 강권하여 데려와야 합니다

주의 집을 채우라는 명령은 매우 절박하고 강제성이 포함된 명령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저주에서 불신자들을 구원해내는 것이므로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말로 설명해서 듣지 아니할 때 팔목을 잡고 끌고 오는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팔을 비틀어서 강제로라도 데려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불신자들을 데려와 주의 집을 채워야 합니다.

3. 하나님의 집을 채우는 것은 성도의 축복입니다

복음을 전해줄 이웃을 만나서 그를 위하여 빌어준 평안이 임하여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을 얻게 된다면 성도로서 그보다 더 큰 보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런 전도자는 금세에 평안, 내세에 영원한 상급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그 가정이 평안을 받기에 합당치 아니하다면 그 축복은 빌어준 자신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하여 하나님의 집을 채우는 자는 복된 자입니다.

· 적용 및 기도

『하나님 아버지! 내 집을 채우라는 주님의 명령에 우리가 핑계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를 통하여 금번 “예수 사랑 큰 잔치”에 우리 교회가 가득차게 하옵시고 새 생명이 탄생되는 기적의 역사를 직접 보게 하옵소서.』

제 4과

아름다운 구역을 이루자

· 본문 : 시 16 : 1-11

· 찬송 : 278장, 280장

· 요절 :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음이여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시 16:6)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신앙생활을 시작한 새가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의 구역에 보내 주신 영원한 믿음의 형제들입니다. 이제 먼저된 우리들은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철저히 살펴보며 심방하고 기도해 주면서 잘 인도해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구역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교회는 이러한 구역을 통하여 성장됩니다.

1. 존귀한 사람들로 구성된 구역입니다

성경은 최고의 가치를 물질이나 세속적인 문화나 보화와 같은 것에 두지 않고 한 영혼에 둡니다(막 8:36). 그러므로 다윗은 본문에서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요, 또한 그들에게 자신의 모든 기쁨이 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바울 사도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 그들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면류관이요 영광이요 기쁨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살전 2:19,20). 그러므로 우리의 구역에 소속된 성도는 존귀한 자들입니다.

2. 하나님만 힘써 예배하고 섬기는 구역입니다

아름다운 구역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섬기는 구역입니다. 특

히 새가족들과 더불어 함께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나누는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과(2절) 기업을(6절) 받게 됩니다. 초대 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일에 전심 전력 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구원받는 자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행 2:43-47). 그러므로 우리의 구역이 힘써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면서 성도의 교제를 이루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3. 하나님께서 그의 주권 안에 줄로 재어 보호하여 주시는 구역입니다

우리의 구역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주권 안에서 줄로 재어 주신 권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권역을 친히 보호하시며 이끌어 주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도 이 주권적 권역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일과, 우리 스스로도 힘써 구역과 구역의 모든 식구들, 특히 새가족들을 잘 붙들어 주고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야만 합니다.

· 적용 및 기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역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가족들을 많이 보내어 주옵시고, 저들을 사랑과 말씀 안에서 잘 양육하여 교제하면서 우리의 구역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구역이 되게 하옵소서.』

가정예배 안내

■ 예배순서

- 1) 찬 송 다 같 이
- 2) 성경봉독 사 회 자
- 3) 메시지 낭독
- 4) 기 도 다 같 이
- 5) 주 기 도 다 같 이

U예배 소요시간

약 15분 내외가 적함

U예배 사회자

가장 또는 가족이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인도

U찬송과 성경 본문

가정예배 안내서의 해당 일자에 소개된 찬
송을 부르고, 성경 본문을 봉독